

서해안 눈 '평평' 12월 2일 (음 10월 12일)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많고 눈 또는 비가 오겠다.

광주	2~5℃
목포	3~5℃
여수	5~7℃
전주	4~7℃
안동	-2~5℃
대구	1~6℃
부산	1~6℃
울릉도	1~6℃
독도	3~6℃
서울	-2~5℃
인천	1~5℃
대전	1~5℃
충주	1~6℃
청주	1~5℃
전주	1~6℃
광주	-2~4℃
목포	1~5℃
여수	1~6℃
전주	-2~4℃
광주	1~5℃

서해남부 앞바다 서~북서풍 파고 2.0~4.0m
서해남부 먼바다 서~북서풍 파고 2.0~4.0m
남해서부 앞바다 서~북서풍 파고 2.0~3.0m
남해서부 먼바다 서~북서풍 파고 2.0~4.0m

▲해돋이 07:23 ▲해질 17:20
▲달돋이 15:02 ▲달질 03:59

목포 밀물 < 11:50 썰물 < 04:39
17:20 17:20 여수 밀물 < 06:51 썰물 < 00:22
19:02 19:02

날짜	3(일)	4(월)	5(화)	6(수)	7(목)	8(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4/5	-3/7	-1/8	1/10	4/13	5/14

기상내보: 131 (광주지방기상청)

첫 눈의 악몽?

주말 목포 등 최고 8cm...대설예비특보

12월의 첫 주말인 2일 광주에 첫눈이 내릴 전망이다. 하지만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겨울 폭설의 악몽이 되풀이 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찬 대륙고기압이 서해상을 통과하면서 해수면과 온도 차이로 눈구름이 만들어져 2일 새벽부터 광주에 1~3cm의 눈이 내린다"고 1일 예보했다.

서해안 인근 예상적설량은 3~8cm로, 한꺼번에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2일 오전을 기해 장성·무안·함평·영광·목포·신안군(흑산면 제외)에 대설예비특보를 발령했다.

2일에는 아침 기온이 광주 2도, 영광·함평 1도, 목포 3도, 무안 1도 등으로 광주·전남 대부분이 영상권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낮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이번 눈은 2일 새벽부터 내려 오후까지 그칠 전망이다. 서해안 일부 지역은 휴일인 3일까지 계속되다가 오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당분간 큰 소식은 없다. 기상청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아 눈이 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예보했다. 반박 찾아왔던 초겨울 추위로 6일째 다시 영상 기온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새벽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도심지 외곽 지역이나 고지대 등에서 빙판길이 예상돼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4일 광주에는 29.2cm의 폭설이 쏟아졌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눈으로 호남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마비돼 200여명의 운전자가 10시간이 넘게 도로에 고립됐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미국산 쇠고기 또 뺏조각

농림부, 불합격 판정...전량 반송조치

농림부는 지난달 23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3.2t에 대한 검역 과정에서 뺏조각이 발견됨에 따라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따라 검역 불합격 판정을 내린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 물량은 모두 반송 또는 폐기되고 미국 네브래스카주 해당 작업장의 수입 승인 역시 취소된다.

주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3일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 3.2t을 엑스레이 이물질 검출기로 전수 검사하던 중 꽃등심살 2박스에서 뺏조각 3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세 뺏조각의 가로,세로,두께는 각각 13mm×6mm×2mm, 7mm×6mm×2mm, 22mm×3mm×1mm로 확인됐다. 강 원장은 "이 뺏조각은 가공 과정 가운데 묻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광우병 특장 위험물질(SRM)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8.9t에 대한 검역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출기 조사 도중 4mm×6mm×10mm 크기의 뺏조각이 발견돼 전량 반송과 해당 작업장의 승인 취소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연합뉴스

인간의 한계 즐기는 '광주 철인클럽'

▲철인 3종 경기란=1978년 미국 해군 J 폴린스 중령이 하와이의 와이키키 바다 수영(3.9km)과 하와이 도로사이클(180.2km), 호놀룰루 국제마라톤(42.195km)의 3개 대회를 한 사람이 쉬지 않고 경기하도록 구성한데서 유래했다.

도전하면 삶이 즐거워진다

추운 초겨울 날씨, 화순 도곡온천 입구에 모인 '철인'들은 입고 온 두꺼운 코트를 벗고, 몸에 딱 달라붙는 전용 슈트(suit)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매서운 겨울 바람을 가로지르며 뛰기 시작했다. 내년에 있을 각종 국내·외 철인3종 경기를 대비해야하기 때문이다.

마라톤·수영·사이클 226.195km 주파

42.195km 마라톤에 3.8km 수영, 180.2km 사이클 등 무려 226.195km를 주파해야 하는 '극한'의 스포츠. 이 3종목을 17시간 안에 완주한 이에게는 '철인'(鐵人·Iron man)이란 호칭이 뒤따른다. 바로 이 '철인'이란 단어에 매료된 사람들. '광주 철인 클럽(cafe.daum.net/gjironman)'의 회원들이다.

이 클럽은 지난 1997년 강용신 회장이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철인 3종 대회 참가 후 결성했다. 현재 회원은 모두 194명, 실제 활동하는 회원 수는 60여명 가량 된다. 지난 8월 제주 철인3종 경기 때에는 21명이 출전, 20명이 '철인'을 획득할 정도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주중에는 각자 운동을 하고, 매주 토요일에 만나 달리기·사이클을 함께 한다.

회원들의 나이·직업은 제각각이다. 강용신(44) 회장은 외국계 제약회사 간부, 강병철 교수(50·전남대 치대)와 심상돈 원장(38·동아병원) 등 의료진을 비롯해 이병우(50·회집 운영)씨, 이광수(37·합기도관장)씨, 신경섭(27·회사원)씨 등이다. 여성 회원



"도전·열정·휴머니즘과 함께!" 최근 화순군 도곡온천 인근에서 단체 운동을 하기 위해 모인 '광주 철인 클럽' 회원들이 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최한필기자 choi@kwangju.co.kr

도 5명이 있는데 이재숙(53)씨와 김혜련(29)씨는 모·나 사이다.

회원들 매주 토요일 전국 누비며 훈련

나이·직업을 초월한 이들은 서로 훈련일지를 공개하고 장비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훈련 여행을 떠나는 등 효과적인 운동 요령을 공유하고 있다

대부분 직장인이지만 매일 일과 후에는 어김없이 운동을 놓지 않는다. 강 회장의 경우 매일 아침 6시부터 1시간 수영, 화~목요일에는 1시간 30분동안

15km 달리기, 토·일요일에는 50km 사이클을 한다. 운동 중 호흡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우던 담배도 끊었다.

강 회장은 "우리 클럽의 구호는 '도전·열정·휴머니즘'이라며 "스포츠 동호회에 웬 휴머니즘일까 싶지만 우리는 '매사에 의욕과 열정이 넘치고, 긍정적으로 살아 움직인다는 성취감이 바로 '휴머니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운 날씨 속, 이들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달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였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광양항 컨테이너 반출입 중단

'물류대란' 재연되나 초긴장

컨공단 등 비상대책반 운영

1일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현실화되면서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이 파업이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는 이날 컨테이너 반출입이 전면 중단되며 이어 화물연대 전남지부 조합원들의 방해로 광양항 철송장으로 들어가는 차량통행이 30여분간 차단됐다.

여수해양청은 지난달 30일부터 광양항 현장에 비상대책반을 가동, 육상운송 차량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반출입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터미널 내 장기 적체화물 등에 대해 터미널 밖으로 조기반출을 유도하고 있다.

이날 광주에서는 화물연대 광주지부 조합원 200여명이 하남산단 9번로 입구에서 집회를 갖고 광주시 동구 학동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광주·전남지부의 '비정규직 법안 통과 항의 집회'에 합류했다.

김성호(42) 광주지부장은 "조합원 1천여명은 물론, 비조합원까지 포함해 광주지역 전체 화물차량의 70% 가량이 오는 파업에 참여했다"며 "특수고용직 보

호법안이 국회 건교위에서 다뤄지는 5일 이후 파업 지속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광주공장의 경우 이날 평소와 달리 제품생산 및 운송량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운송도 비조합원 소속 화물 차량이 동원돼 물류에는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다. 또 2~3일도 휴무로 작업을 쉬기 때문에 사실상 파업영향은 거의 없다. 그러나 4일 이후부터는 정상조업과 운송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철도를 통한 운송 등 비상 물류계획을 수립해둔 상태다.

광주와 곡성 등 두곳에 공장이 있는 금호타이어도 아직은 운송에 특별한 지장은 없다. 광주공장의 경우 운송 차량 기사 대부분이 비조합원이어서 이날도 모두 정상운영, 물류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부품물류의 경우 협력업체가 자가 차량으로 납품하기 때문에 파업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내수 및 수출차량 물류 운송을 맡고있는 70여대의 차주도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비조합원이어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시, 청사 파손 'FTA시위대' 상대

2억여원 손해 소송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시위와 관련

광주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폭력 시위 주동 단체와 가담자를 상대로 역대 최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전남 광주·전남연맹, 한미FTA반대 광주·전남희망연대 등 3개 단체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달 24일 경찰에 형사고발 한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추가해 향후 사회단체와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1일 "시 청사 파손 등 폭력 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한미FTA반대 광주·전남희망연

대 소속 3개 단체와 시위 가담자 42명을 상대로 2억1천8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광주지방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시민·사회단체와 개인 등을 상대로 폭력시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소장을 통해 "지난 달 22일 시청 앞 폭력시위로 청사 유리창이 깨지고 보안시설이 파괴되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재산상 손해액 2억원과 공무원 치료비 1천800여만 원 등의 배상을 요구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교원임용 지역 가산점 합헌"

법원, 법적 효력 첫 인정 광주·전남 28명 소송영향

교원 임용시험에서 당해 지역 사법대학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이 위헌이라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후 개정된 관련 법률이 더

이상 헌법에 위배되지 않느냐며 법적 효력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김모(여·26)씨 등 28명이 임용고시에서 지역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했다며 광주시교육감과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해놓은 교사인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 직결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박상훈 부장판사)는 2006학년도 서울시 중등학교 임용고시에서 지역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했다며 김모(여·28)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사인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대를 지원하는 사람들과 비사법대를 지원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교직에 대한 희망과 그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의 점에서 차이가 있었던 점에 비추 볼 때 그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따라서 지역가산점 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하는데 지역가산점 조항은 헌법이 정한 공무원임용과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진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부득이한 것인 만큼 헌법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금남로 분수대 성탄트리 점등

1일 오후 옛 전남 도청앞 금남로 분수대에 올해도 성탄트리 화려하게 점등됐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높여주는 성탄트리

는 내년 초까지 불을 밝힌다. /고영석기자 ksgo@kwangju.co.kr

나원침 (6991)



평등도시의 중심축권을 우리는 3.636 회대까지!

수원신도시 파오래

062-367-9000

한국 한센인 64명 보상

日정부 '800만엔씩 지급'

한센인 인권변호단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때 고흥 속목도에 강제 격리한 한국 한센인 64명에게 800만엔씩 보상금을 지급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일본 후생노동성에 보상을 청구한 한국 한센인 441명 중 155명이 보상을 받게 됐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때 강제 격리한 외국인 한센인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한센인 요양원 입소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정해 올해 3월부터 보상 신청을 접수받았다.

일본은 대만인 신청자 25명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으며 한국인 신청자의 경우 지난 3월 2명, 6월 62명, 7월 3명, 10월 24명에 이어 11월30일 64명에게 보상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MBC 주몽 20회 연장

MBC 특별기획드라마 '주몽'의 20회 연장이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애초 60화로 기획된 '주몽'은 80화로 내년 2월 말 종영된다.

MBC는 1일 "송일국이 차기 드라마와 영화 스케줄을 어떻게 조정해 연장 결의에 따라 '주몽'은 20회 가장 연장 때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MBC는 '주몽'의 연장을 강력히 추진했으나 타이틀을 맡은 송일국이 연장 불합의 사를 고수해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MBC가 연장 방영분의 작품성 보장과 제작환경 개선 등 송일국이 제시한 연장 출연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등 끝까지 정성을 들인 끝에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연합뉴스

전직 여교사, 두남자에 결혼 시기

○...두 남자와 동시에 사귀며 결혼을 전제로 돈을 빌린 뒤, 결혼도 하지 않고 돈도 갖지 않은 30대 전직 여교사가 경찰에 탐파.

○광주 서부경찰은 지난 11월 모 결혼정보회사의 재혼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김모(45·사업)씨와 결혼을 약속한 뒤 "빚을 갚는데 필요하다"며 11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빌린 뒤 갖지 않은 최모(여·42)씨에 대해 1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전직 교사인 최씨는 김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이모(43)씨와도 사귀고 있었으며, 이씨에게 빌린 돈 4천900여만원을 갖기 위해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김씨에게 접근했다고.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